metro®

메트로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제2948호 www.metroseoul.co.kr

앞당긴 여의도 벚꽃축제 기상이변으로 벚꽃 개화가 예년보다 2주가량 앞선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벚꽃이 활짝 피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는 3일부터 시작한다. /뉴시스

'빚 공화국' 중병 앓는 대한민국

총 부채 3748조원으로 GDP의 3배 육박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는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GDP 1428조3000원의 264.9%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빚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GDP와 비교할 때 지난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감돌았던 2008년 254.4%, 2012년는 260% 선으로 뛰었다. 이는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빚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10년 전 2003년보다 2.3배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 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중앙+지방) 부채는 496조6000억원으로 3.4배나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집행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작년 공무원 연금 적자 2조…사상 최대

지난해 구멍 난 공무원연금을 메우느라 1조998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입은 7조4854억원이었고, 지출은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으로 총 7조4302억원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구성됐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부족금을 메우기 위해 1조9982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6억원에서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 연금의 자산(15조2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조3343억원 ▲금융투자 부문 3조9698억원 ▲학자금대출 3조6207억원 ▲연금대출 부문 1조2847억원 ▲부담금 미수금 등 9576억원 ▲공공 부문 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직자의 월소득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김민준기자 mjkim@

과천·능동 대공원 동물원 4일 재개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문을 닫았던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4일 재개장한다.

2일 서울대공원은 측은 "지난 1월 28일부터 주 1회씩 모두 9차례 AI 관련 검역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기온 상승으로 AI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있어 동물원들을 다시 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동물원은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AI가 북상하자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1차로 문을 닫았고, 같은 달 13일부터 2차 휴원에 들어갔다.

동물원 측은 재개장 이후에도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조류 전시장은 당분간 안전띠를 설치해 관람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동물사와 관람로에 대해 매일 3차례 이상 방역하고, 조류 전시장은 매일 4차례 이상 소독할 계획이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입구에 설치된 소독 발판을 통과해야 진입이 가능하며 조류사 일부(들새장·물새장·앵무마을)는 관람이 통제된다.

/조현정기자 jhj@

'취업하러 가자'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 콘서트(JOB CONCERT)에서 고등학생들이 박람회장으로 대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추종세력 국회·언론·검찰에"

김성호 전 국정원장, "안보 위해 세력 존재"

이명박 정부 시절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 "북한 추종세력이 국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고,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전 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모임에서 특강을 하며 "북한은 남남 갈등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에도 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면서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벌받으면 되니까"라면서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내부에는 안보 위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변에 대해 "마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국익과 관련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변했다. 신념 같은 것은 안 보이고 터미네이터를 보는 것 같다.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만 하고, 통제불능 상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원 개혁 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 앞에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연대포럼에서 유우성 사건 등 국정원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팅 모델과 검은 손의 유혹

기자 수첩

김 학 철 <생활레저부 기자>

피팅 모델에게도 '전문성'을 입혀 당당히 하나의 직업군에 올리겠다던 유명 모델 에이전시 대표 등 직원 6명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모델 데뷔 등의 명목으로 여성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다.

최근 국내 패션 시장이 커지며 크고 작은 의류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이 성공을 꿈꾸며 소자본으로 차린 온라인 쇼핑몰은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늘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는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오프라인에 건물 전체를 빌려 매장을 차리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엉뚱하게도 '쇼핑몰 피팅 모델'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를 통하기보단 모델이 필요한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연락하라고 조언한다. 대출이나 돈을 요구하는 에이전시는 볼 필요도 없다. 성급한 피팅 모델보다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델은 옷을 입고 대중에게 그 옷의 맵시를 보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결코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을 뽐내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은손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직업 모델'의 의미를 먼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 제안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해상 포격을 언급하며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다"며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했다.

이어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

북 식량차관 3차 상환금도 안갚아

북한이 새로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 3차 상환금도 갚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3차 상환금도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갚아야 할 3차 상환 원리금은 700만 달러(약 74억원)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의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은 1800만 달러(약 190억원) 규모로 늘었다.

특히 식량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153만 달러(약 1조173억원)에 달한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개헌자문위, 6년 단임 대통령제 발표

●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 제도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 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 행정관 5명 비위 적발

●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 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3~5급 5명이다. 이들의 원소속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었다.

백령도·파주 추락 무인기 北제품 결론

군과 정보 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들은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공중 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며 "하지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해상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추락 당일인 지난달 31일 레이더에 항적이 잠시 포착됐지만 곧바로 사라졌다"며 "항적은 북쪽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도 리튬이온배터리 뒷면에 '기용날자'라는 글자가 있었다. 기용날자는 제품을 쓰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김민준기자

'어벤져스' 촬영 돌아가세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한국 촬영이 진행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 일대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돼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연합뉴스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곧 소환

홈쇼핑 납품 관련 뒷돈 받은 듯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사장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 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들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모해 횡령한 금액은 4억9000만원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문장은 따로 1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통업체 특성상 고질적인 상납 비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대형 화재 원주 청림사 소실 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청사 요사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98㎡를 모두 태워 7100만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원주소방서 제공

유우성 세번째 검찰소환도 불응

검찰 강제구인도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대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청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실상 위조로 판명된 검찰 측 문서와 별개로 유씨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도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는 만큼 유씨가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ydh@

광주지검장 "허재호 벌금내면 끝나"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 지검장은 이날 낮 광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그는 "애초 반대했었고 대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다"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노역으로라도 벌금을 집행하도록 뉴질랜드에서 귀국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아 성과를 냈지만, 환형유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비난 여론에 밀려 노역을 중단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 타계
1991년 4월 3일, 항상 쫓기는 자의 불안과 공포를 묘사하여 악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한, 추리 기법의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86세로 사망했다. '권력과 영광' '제3의 사나이' '조용한 미국인' 등 호평받은 소설 중 많은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져 성공을 거두었으나 번번이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해 '영원한 후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는 스릴러의 대가이면서도 인간 실존과 신의 관계를 깊이 고찰한 신앙인이었다.

"올해도 풍년농사 기원합니다" 2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록제단에서 전창범 양구군수 등이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동부청과물시장 59층 건물 선다

7만여평 규모…주민공동시설도 갖추기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청과시장이 59층 건물로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일 "어제 제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설 건물은 지하 6층~지상 59층 규모로, 전체면적이 23만1832㎡(약 7만여 평)에 달한다. 건폐율은 55.58%, 용적률은 999.99%다.

11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84㎡)과 더불어 점포,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상인에게 입점 우선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건물 중앙에는 이용객의 쉼터 조성 및 쇼핑공간의 연계를 위한 대규모 선큰광장을 도입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또 보육시설, 세미나실, 경로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 답십리길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 청량리역에서 나오는 상가 이용자와 시장 배후의 주거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해 자치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단지는 청량리, 용두1도시 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해 청량리 부도심 개발계획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북권의 상징적 건축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다음 개인정보 빼돌린 해커 적발

필리핀서 서버침입 내려받아

개인정보 해킹으로 악명이 높은 유명 해커의 또 다른 범행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포털사이트 다음을 해킹해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해커 신모(40)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고객(CS)센터 서버에 침입해 이름·주민등록번호·아이디·비밀번호·주소·전화번호·신분증 사본 스캔파일 등이 포함된 회원 개인정보 4만 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허모(43·복역 중)씨 등과 공모해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고객 17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현대캐피탈을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모델학과 학생들 야외 수업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돈 2일 대전 대덕대학교 모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벚꽃 아래서 포즈 연습을 하며 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시상식

한국장학재단 37개작품 선정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과 업무 담당자의 체험수기와 성공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4년 국가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국가근로장학금 우수 사례 수기공모전에는 총 958개의 수기가 접수됐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37편의 작품이 선정됐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교내·외에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올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1·2회차가 마감됐으며, 다음 3차 신청 접수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주택가 가로등 20% 기준치 초과

환경과학원, 차단형설치 필요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 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 기준 10lx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 침입 정도는 평균 28.6lx로, 다른 조사 지점 평균치 5.6lx 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 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면역력 저하·어린이 성장 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

계성여고 길음캠퍼스 기공식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계성여자고등학교가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공식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계성여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계성여고는 명동지역의 도심 공동화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돼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이전이 추진돼왔다.

이전되는 주소는 성북구 길음동 1284-15번지로 2016년 3월 1일자로 변경된다. /윤다혜기자

한성대-장수돌침대 산학협약

한성대가 장수돌침대㈜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한성대는 협약 내용에 따라 무역학과 강명수 교수를 주임교수로 해 장수돌침대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산학협력 강좌를 개설·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강좌 운영 시 필요한 연구 활동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에 협조할 예정이다.

CS 대상·안전 장려상 받아

서울지방우정청은 1일 우정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3년도 경영·CS·안전 연도대상'에서 고객감동경영(CS)부문 연도대상과 안전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기덕 서울지방우정청장이 '고객감동경영 최우수청 수상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탈루한 지방세 7억여원 추징

서울시 강남구는 초대형 요정 등 15곳에서 탈루한 지방세 7억5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유흥주점은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편법으로 일반 세율만 적용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영등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서울시 영등포구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31개 동물병원에서 생후 3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술료(5000원)는 소유자가 부담하며 예방접종 기간에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도봉,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서울시 도봉구가 집중호우 시 빗물 역류 및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저지대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2일 밝혔다. 역류방지시설은 집 내부의 싱크대 등에, 물막이판은 지하 출입구와 창문에 시공하게 된다.

칠레 해안 8.2강진… 최소 5명 사망

중남미 태평양 전체 쓰나미 경보 발령

칠레 북부 해안에서 1일 오후 8시46분(현지시각)께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마흐무드 알레우이 칠레 내무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칠레 북부 태평양 연안 항구도시인 이키케에서 북서쪽으로 99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번 지진으로 칠레 북부 해역에서 2m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나타났다고 USGS는 덧붙였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칠레와 페루 등 중남미의 태평양 해안 전체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PTWC는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진앙 근처 해안선은 몇 분 안에, 좀 더 거리가 먼 해안선은 몇 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쓰나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칠레 해군은 지진 발생 45분 만에 초대형 쓰나미가 북부 해안 일부를 덮쳤다고 말했다. 칠레 내무부 산하 국립재난관리청은 지진 발생 인근 해안선에 대피령을 내렸다. 칠레와 인접한 페루의 민방위 당국도 남부 해안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미 당국도 서부 하와이에 쓰나미 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PTWC는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와이가 쓰나미 주의보 또는 경보 상태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칠레 북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진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달 16일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1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2주간 크고 작은 지진이 수백 차례 발생, 강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칠레는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다. 칠레는 지난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규모 8.8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당시 526명이 숨지고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구글 통근버스 막고 시위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이 '울트라맨' 복장을 하고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통근버스를 가로막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실리콘밸리의 IT업체들 때문에 임대료와 생활비가 상승,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북 우주개발국 로고 NASA 흉내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왼쪽) 로고와 미국항공우주국 로고. /가디언

북한이 최근 발표한 국가우주개발국(NADA) 로고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로고의 '짝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북한 우주 개발 기구의 로고가 NASA를 흉내 낸 것 같다며 두 기관의 로고를 비교,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NADA의 로고는 NASA와 마찬가지로 푸른색 원형 지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문자 배열도 유사하다. 알파벳 'NADA'와 'NASA'가 흰색으로 새겨져 있다는 점도 같다.

가디언은 또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NADA의 상징으로 지구를 선택한 것은 평화적인 (우주) 탐사의 꿈을 표현하는 것 같다"며 "푸른색 고리는 위성을, 별자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디언은 북한 우주개발국의 영문 약자인 NADA가 스페인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nothing)'를 뜻한다며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난 것을 로고의 '의미'와 연결 지었다. /조선미기자

돈받고 군인 100명 승진의혹

구쥔산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돈을 받고 군인 100여 명을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구 전 부부장의 부패 혐의 중 하나가 관직 매매였다면서 중국 군 내 매관매직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한 소식통은 "구쥔산은 수백 개의 자리를 팔았다"면서 "상교(대령과 중령 사이 계급)에서 소장으로 승진하려면 3000만 위안(약 51억 1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거액의 뇌물을 주고 승진한 군인 대부분은 '투자'한 돈을 찾기 위해 다시 부패를 저지른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와 관련, 매관매직에 연루된 군인들이 너무 많아 중앙 지도부가 처리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강등이나 해임, 또는 직접 기소될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打通車位改建豪宅

浙江溫州有屋苑業主購入兩層樓的複式住宅後嫌空間不足，將地下停車場車位圍封建造成地下室，再打通到地面住宅大廳。當地有部門表示屋苑業主屬違規，但另有部門則指沒違規。有其他業主擔心安全問題，惟該戶主認為沒影響他人。

▲業主圍封地下停車場車位，改建地下室。

▲室內建樓梯到地下室，成三層豪宅。

溫州鉑金家園7幢101室業主將地下停車場圍封，並建造樓梯通往住宅大廳，令兩層的複式結構變成三層套房。業主稱地下車庫是由其妻購置，本來想買輛車，後來沒買就將該車庫圍封，準備改建成地下酒窖。溫州生態園管委會城市管理和行政執法局（城管）一度責令停建，但後來又指因沒增建面積，故既不屬違規也不在其管轄範圍，應由住房局所管。住房局指業主已破壞建築的主結構，改變功能，故屬違規。有其他屋苑業主表示該業主是屋苑開發商之一，他的「示範」令其他住戶開始仿效，令他擔心屋苑的安全。業主承認改建「從法理上是行不通」，但堅持對其他住戶沒影響，只有當局確認違規才拆除。

1층집 지하주차장 연결공사 논란

metro HongKong

중국에서 한 아파트 1층 세대주가 주차장을 막고 집 1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만들어 논란이다.

저장성 원저우시 보진자위안 아파트 7동 101호 세대주 천모씨. 그는 복식 구조인 아파트를 '지하 궁전'이 있는 3층짜리 집으로 마음대로 바꿨다. 천씨의 '지하 공작'은 다른 세대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관할 구역 도시 관리 당국은 통지서를 보내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건물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7일 이곳에서는 여전히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래 복식 구조인 이 주택의 면적은 약 300㎡. 1층에는 각각 2층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공사는 약 1년 전에 시작됐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러 오기 전에 이미 지하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개조 행위를 지역 주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2년 전 101호 주민이 주차장을 개조해 지하실로 사용하면서 소방 통로의 일부 면적을 점유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은 "101호가 안 좋은 선례가 됐다. 많은 1층 주민들이 따라 하려고 하고 있고, 벌써 공사를 시작한 집도 있다. 모두 이렇게 지하층을 만들어버리면 주차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천모씨는 "지하주차장 자리는 원래 좋은 차를 사서 세워두려고 사두었던 건데 차를 구입하지 않아서 지하층을 만들어 와인바를 설계하기로 했다"며 "이 지하층이 다른 세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기관에서 이 개조가 확실히 위법이라고 하면 그때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학용품 지급 늦어져 수업진행 차질

metro Brazil

Rede municipal.
Alunos ainda não receberam material

Quase dois meses depois do início das aulas, estudantes da rede municipal de ensino ainda não receberam o material escolar. Dos 550 mil kits que vão ser distribuídos pela administração municipal aos alunos, 150 mil ainda não foram envia-

é o número de kits escolares que não foram entregues aos estudantes pela administração municipal.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브라질 상파울루의 학교에서는 원활한 수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업 물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 상파울루의 시립 학교에 공급됐어야 할 학용품은 총 55만 개였으나 수업이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5만 개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파울루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해서는 학용품이 모두 지급됐으나 그 외의 학생에게는 아직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남은 15만 개의 학용품이 내달 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 기간에 따라 차별을 초래하는 현재의 학용품 지급 방식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학부모는 "현재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며 "아이에게 학용품을 사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이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돈이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모두 지급받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지역 교육 관리국은 "7학년에서 9학년의 학생은 모두 학용품을 지급받았으나 1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들은 부모가 직접 물품을 받아가야 한다"며 물품 전달에 난색을 표했다.

문제가 된 학용품 세트에는 공책과 펜, 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재활용 물품으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이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2일>

코스피 1997.25 (+5.27)

코스닥 557.65 (+8.57)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환율(원·달러) 1057.80 (−0.20)

뉴스&뉴스

증권사 CEO 평균 나이 55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였으며 절반 이상이 명문대 출신 일명 스카이(SKY)를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 CEO의 평균 연령은 만 55세였으며 최연소 CEO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문구상 대표이사로 만 40세다.

부국증권 전평 대표이사 사장이 1951년생으로 유일한 60대였다.

증권사 CEO의 출신 대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대 7명, 연세대 5명, 고려대 5명 등 이른바 SKY 출신의 비중이 높았다. /박정원기자

대기업 2차 협력사 '시큰둥'

●대기업의 협력사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1차 협력사는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2차 협력사의 경우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조사한 '1·2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1차 협력사들은 지난 1년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동반성장 의지 ▲소통 강화 노력 ▲경쟁력 강화 지원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71.6%, 67.3%, 68.7%였다.

반면 2차 협력사들은 ▲1차 협력사 CEO의 동반성장 의지 ▲소통 강화 노력 ▲경쟁력 강화 지원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35.8%, 45.1%, 36.6%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하도급 공정거래 수준에 대해 1차 협력사의 70.6%, 2차 협력사의 38.9%가 지난 1년간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김태균기자

연금복권520 제14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4조	496178
		7조	581601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197227
4등	100만원	각조	43255
5등	2만원	각조	062
6등	2000원	각조	81,20
7등	1000원	각조	7,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SKT 직원 연봉 평균 1억… 100대기업 중 최고

SK텔레콤이 100대 기업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3개사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들이 받은 연봉은 평균 7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1억500만원을 지급한 SK텔레콤이다.

삼성전자(1억200만원), 삼성토탈(9500만원), 에쓰오일(9461만원), 현대자동차(9400만원), 기아자동차(9400만원), 여천NCC(9387만원), GS칼텍스(9107만원), 한국외환은행(8920만원), SK에너지(8762만원)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국명기자 kmlee@

지난해 삼성·SK·LG 빼곤 죽 쑀다

10대 재벌그룹 영업이익 양극화… GS·한진 적자 전환

국내 10대 재벌 그룹 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다른 재벌 그룹은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돼 삼성의 영업이익이 나머지 9대 재벌 그룹의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3곳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조190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33조960억원보다 15.4% 늘어난 수치다.

SK그룹 16곳의 영업이익도 8조7842억원에서 11조3963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은 악화했지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LG 11곳의 영업이익도 8.9% 늘었다.

이에 반해 롯데 7곳의 영업이익은 6.9%씩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012년 1조7711억원에서 작년 1조5498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두산그룹 6곳의 경우 영업이익도 1조3762억원에서 2조5445억원으로 84.9%나 급증했지만, 1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나머지 5개 그룹의 경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현대중공업그룹 3곳의 경우 영업이익이 2012년 2조1283억원에서 2013년 5488억원으로 74.2% 줄었다. 한화 3곳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이 각각 9974억원, 1573억원으로 전년 2012년보다 21.4%와 62.8%씩 줄었다.

GS 8곳과 한진5곳은 각각 763억원과 420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차그룹 9곳의 경우 영업이익이 17조7912억원에서 17조3456억원으로 줄었지만, 순이익은 19조329억원에서 20조306억원으로 5.2% 늘었다.

한편 지난해 10대 그룹 81개 상장사가 거둔 영업이익은 79조7697억원으로, 전년 74조2267억원보다 7.5%, 5조5431억원 늘었다. 이는 삼성그룹 영업이익 증가폭인 5조946억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15년만에… 경제부총리, 한은 방문 현오석(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에게 초상화를 선물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이 한은을 찾아간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한은법이 1999년 개정된 이후로 두 번째다. /연합뉴스

금융권 '해커·지진 안두려운' IT센터 신축 붐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IT센터 확장 및 건립 움직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농협은행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NH통합 IT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3200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통합 IT센터는 기존의 양재동 전산센터를 4.1배 확장하는 것으로 오는 201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자체 전력 보급이 가능한 무중단 유지·보수 시스템 ▲5단계의 최첨단 다중 보안 시스템 ▲지진에 강한 면진 설계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신한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신한데이터센터는 진도 7.0의 강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고 정전 시 약 30여 시간 자체 발전이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회사인 DPR과 '하나금융 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봇물터진 1순위 청약

올들어 10만명 넘어… 전년비 3배 급증

1분기 신규 분양된 아파트에 1순위 청약한 사람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어난 수치다.

2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적으로 53개 단지, 2만4609가구(공공·국민임대 제외)가 분양됐다. 지난해 2만4065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도권 5681가구 ▲지방광역시 1만2063가구 ▲지방중소도시 6865가구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청약통장을 사용한 1순위 청약자는 총 10만7759명으로 작년 동기(2만9765명) 대비 3.6배나 증가했다. 3순위까지 포함한 총 청약자는 작년 1분기 4만9648명보다 2.7배 늘어난 13만4689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1순위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곳은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로 604가구 모집에 7301명이 접수했다. 이어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가 1497가구에 2401명이 청약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1순위 청약자 1만 명 이상 단지가 4곳이나 나왔다. 이 중 3곳이 대구에 집중됐다. 특히 북구 침산동 '침산화성 파크드림'으로는 3만2131명이 몰려 전국적으로도 1순위 청약자가 가장 많았다.

권역별 1순위 청약자 수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수도권	9,065	10,049	10.90%
지방광역시	9,138	86,831	850.20%
지방중소도시	11,593	10,879	-6.20%
전국 합계	29,796	107,759	261.70%

평균 경쟁률이 38.48대 1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성군 북죽곡 '엠코타운 더솔레뉴'가 1만1540명,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1만1380명, 대구 달성구 월성동 '대구월성 협성휴포레' 1만489명 순으로 집계됐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규제 완화책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1분기에 1순위 청약자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하지만 2·26대책의 전월세 과세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은 3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확산돼 2분기 분양 시장은 입지, 분양가에 따라 청약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제6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장학금에 웃고, 학자금대출에 고마웠던-

당신의 감동 스토리를 나눠주세요

공모자격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수혜를 받았거나,
일반/든든학자금대출 수혜를 받은 대학(원) 재적자('14.4월 현재)

공모부문

일반부문
공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부문 지원 대상임

나눔부문
공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등)
※2차 심사 통과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공모전 주제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
재단 학자금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한 노력 및 성공사례
(한글 2,000~4,000자 분량, A4(12P) 3장~4장, 200자 원고지 10~20매 이내)

접수 기간 2014. 4. 1(화) ~ 4. 15(화)

접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응모

당선작발표 2014. 5. 1(목) 18시 예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Daum 수기공모전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발표)

시상 내용

대상 (1편)		장관상 및 200만원
특별상 (1편)		장관상 및 150만원
일반부문	최우수상 (1편)	장관상 및 150만원
	우수상 (2편)	상장 및 100만원
	장려상 (2편)	상장 및 50만원
나눔부문	최우수상 (1편)	장관상 및 150만원
	우수상 (2편)	상장 및 100만원
	장려상 (2편)	상장 및 50만원
총계	12편	1,250만원

문의 한국장학재단 수기공모전 담당(02-6925-7339)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수기공모전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의 모든 권한은 한국장학재단으로 귀속됩니다.

선착순 1000분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우유 | 건강음료
※수기접수 및 내용에 이상이 없는 분들에 한함

‘월드컵 마케팅’ 은행도 슛~

레알화 환전 우대·브라질 공짜 여행 등 혜택

은행권이 올해의 ‘스포츠 빅 이벤트’인 오는 6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상품을 출시하며 고객몰이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준(사진 오른쪽) 하나은행장은 최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에드문도 수수무 후지타 주한 브라질대사를 만나 국내에 브라질 문화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연초부터 시작된 하나은행의 브라질 문화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월드컵 개최 전에 브라질 대사관과 문화원이 주최하는 브라질 문화의 밤 행사에 공식 후원할 예정이다. 향후 브라질 대사관과 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레츠고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를 출시했으며 ‘브라질 문화 퀴즈 이벤트’를 펼치는 등 브라질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오는 6월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과 연계한 정기예금인 ‘외환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오는 6월 17일까지 판매되며 판매 한도는 총 3000억원으로 두 차례에 나눠 판매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로 1인당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로 예금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1년제다.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 연 2.7%(3월 28일 기준)에 대한민국 축구팀의 최종 성적 결과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더불어 오는 6월 30일까지 이 예금을 가입한 고객들은 환전 시 미 달러화는 60%, 브라질 레알화는 20%까지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오는 18일까지 ‘나만의 방법으로 공짜 브라질 월드컵 고(GO)!’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SC은행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기재하면 추첨을 통해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추첨을 통해 1등으로 당첨된 3명에게는 동반자와 함께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3박4일 브라질 여행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minji@

2000 뚫자! 코스피 헤딩

장중 1900 박스권 탈출… 美증시 상승·저평가·수출주 양호 ‘장밋빛’

국내 증시가 수년간 이어진 1900선대 박스권에서 접혔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처음으로 장중 2000선 고지를 탈환하고 코스닥지수도 7개월 만에 550선을 넘어서자 시장에서는 잇따른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발 훈풍도 작용했다. 1일(현지시간) 대형주 중심의 미국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행진을 잇자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이에 국내 증시가 더 하락하기 어려운 정도로 싼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에서부터 국내 수출주 전망이 양호한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시각까지 다양한 기대감이 불거져나왔다.

2일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2001.26까지 올랐다가 장 내내 1990선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외국인이 지난달 26일부터 1조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550선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향후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하려면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원·달러 환율 1050원선 ▲G2발 대외 영향 등의 3가지 요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에 달렸다고 봤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닷새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 규모의 절반가량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됐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실적 등의 부분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실적 측면의 역성장 우려를 벗어나야 코스피의 박스권 탈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원화 강세가 열쇠라고 진단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지금과 같은 매수 강도를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며 “환율이 10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코스피지수는 달러화로 환산할 때 수급만으로도 2050선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국의 금융위기 우려와 수출의 3년째 제자리걸음 등에 환율이 한 번도 1050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며 “환율 1050원 붕괴가 향후 코스피 박스권 탈출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기 민감주에 끼칠 영향에 주목했다.

박성현 연구원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금리 인상 시점을 양적완화 종료 후 6개월 정도로 명시한 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반면 국내 경기 민감주 주가는 반등했다”며 “또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해 산업별 개선이 이뤄지면 국내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더해 신흥국 시장 내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올 1분기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도 1.1배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하락하기보다 반등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넘사벽 2000’ 오늘 깰까 엿새째 이어진 외국인 사자 행진 덕분에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27포인트(0.26%) 오른 1997.2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000.13으로 장을 출발해 장중 연중 최고치인 2001.26을 찍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축소했다. /뉴시스

보험사 부당행위 임직원 제재 급증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는 전년 동기 대비 3.2배, 생명보험사는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라며 보험사의 내부 통제 강화와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손보사의 경우 54명에서 171명으로 3.2배, 생보사는 58명에서 14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손보의 경우 동부화재가 32명으로 보험업계 통틀어 제재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LIG손해가 23명, MG손해가 19명, 롯데손해가 18명 순이었다.

생보업계는 알리안츠생명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흥국생명이 18명, 미래에셋생명·신한생명·동부생명이 14명이다. 특히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신한생명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험사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생보사가 88건에 74억2000만원으로, 38건에 26억원인 손보사보다 건수는 2.3배, 금액은 2.85배가 높았다.

/박정원기자 pjw89@

삼성·LG UHD TV 글로벌시장 공략 본격화

中·美서 신제품 출시… 독일·이탈리아서도 마케팅 활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초고화질(UHD) TV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UHD TV가 유럽시장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2014년형 신제품 UHD TV'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40~50형 TV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55·48·40형 등의 평면 UHD TV를 특화 모델로 소개했다. 반면 미국은 프리미엄급 TV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105·78·65·55형 커브드 UHD TV를 비롯해 85·65·55형 평면 UHD TV, 65·55형 커브드 풀HD LED TV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이 같은 삼성 커브드 UHD TV에 대해 영국 '트러스티드 리뷰'와 'AV 포럼'은 "뛰어난 2D·3D 화질을 갖춘 매우 정교한 스마트 TV 시스템으로 TV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 UHD TV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만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극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 중앙홀 성당 앞에 '타임리스 갤러리' 디자인의 85형 UHD TV를 설치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숨은 명소를 생생한 화질로 연간 7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규격 인증기관 'UL'과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UHD TV 3D 화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인증기관은 UHD TV의 색 정확도, 명암비, 휘도 등을 평가해 'LG UHD TV'가 3D 영상 시청 시 완벽한 UHD 해상도가 구현됨을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105·98·84·79·65·60·55·49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UHD TV를 선보이는 한편, 독일 레버쿠젠 경기장 내 TV 체험존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 구매층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아시아권 시장에 대해서는 1~3일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거래선 대표를 서울로 초청해 행사를 열고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49형에서 105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UHD TV를 출시해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들이 '2014년형 삼성 커브드 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화분도 공기청정기 교원 웰스 공기청정기는 식목일을 앞두고 2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지키자'는 주제로 미니 화분과 나무 씨앗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연합뉴스

지능형자동차시험장 준공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2일 지능형자동차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험장은 지난 2007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2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준공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자동차 부품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975억원을 투자해 39만4565㎡ 규모로 시험장을 조성했다. 시험장은 시속 20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ITS 고속주회로와 차량·도로연계 시험 교차로 등 17개 시험로로 구성됐다.

시험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맞도록 설계돼 완성차 및 부품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하다.

12개 노변 기지국이 설치돼 국내 최초로 시험장 전 구간에 기지국과 차량 간 근거리 전용 통신, 무선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또 차세대 무선 교통 통신인 웨이브 기술이 구현되도록 설계됐다. /유주영기자 boa@

"배려·존중 없는 'SNS 소통'"

효성 이상운 부회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세대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이 '4월 CEO레터'에서 "회사의 경영 방침인 책임 경영을 위해 신뢰의 소통이 바탕이 된 팀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우선 SNS세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 세대처럼 소통에 능숙한 세대도 없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 교류가 가능하고 SNS를 통해 근황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부족하다"며 "소통의 기본은 존중과 배려인데 그것이 배제된다면 제대로 소통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세종대왕과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사례를 들어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즉위한 세종대왕은 연륜 있는 대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묻고 경청하기'를 실천했다"며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아무리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해도 귀는 닫고 입만 열어놓고 있다면 말 그대로 서로 '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ksgit@

후불 'SK알뜰폰' CU서 판매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인 SK텔링크 '세븐모바일'은 3일부터 편의점 CU에서 최신 폴더폰과 결합된 후불 알뜰폰 상품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링크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CU에서 삼성 미니멀안심폴더(SHW-A301S)와 LG와인 샤베트(LG-SH840)폰으로 간편하게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링크는 우선 3일에는 수도권 3500개의 CU 점포에서 판매를 개시한 뒤 7일부터는 전국 8000여 개의 모든 CU 점포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세븐모바일의 서비스는 '폰드림9' 요금제로, 기본료가 월 9000원이며 음성통화는 1초에 1.8원, 문자메세지는 1건당 20원, 데이터는 1MB당 40원이다. 이 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이 적어 기본 제공되는 무료 통화도 소진하지 못하는 고객이나 최신 피처폰을 최저가로 구입하길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폰드림9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 미니멀폴더의 월 할부금은 900원이며, LG와인샤베트폰의 월 할부금은 없다.

구매 방법은 가까운 CU에서 고객이 단말기를 선택한 후 거치대에 안내돼 있는 전화번호로 가입 신청을 하면 전문 상담원의 개통 상담을 거쳐 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SK텔링크는 이번 편의점 CU 진출을 기념해 CU를 통해 개통한 고객 전원에게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사업본부장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CU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며 "알뜰폰의 원래 취지인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합리적이고 알뜰한 통신 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SK텔링크 '세븐모바일'은 편의점 CU에서 최신 폴더폰과 결합된 후불 알뜰폰 상품 '폰드림9'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링크 제공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제1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해외 바이어들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엑스포는 4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이통 '무제한 요금제' 경쟁

SKT·LG유플러스·KT 같은날 출시 발표, 초반부터 신경전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로 무제한 경쟁을 선포했다.

2일 LG유플러스가 통화 및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발표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도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소식을 전했다. 특히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 발표회 도중 유사 요금제 출시를 발표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포문은 LG유플러스가 열었다. 5일 영업 재개를 앞둔 LG유플러스는 2일 오전 11시 음성·문자·데이터 완전 무제한 서비스 'LTE8 무한대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이 요금제는 유형 및 약정할인 종류에 따라 'LTE8무한대 80'(최저 6만2000원)와 'LTE8무한대85'(최저 6만7000원)로 나뉜다.

이상철 부회장은 "스마트폰 동영상 감상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 고민도 증가했다"면서 "LTE8 무한대 요금제는 통화와 문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획기적 서비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시작 30여분 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요금제 설명 도중 유사 요금제 출시를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이에 대해 유필계 LG유플러스 CR 전략실 부사장은 "경쟁사 CEO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데 유사 요금제 출시 내용을 불쑥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점잖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는 상도덕을 무시한 적 없다"면서 "이미 LTE 무제한 요금제를 준비 중이었고 LG유플러스가 오전 11시 출시한다고 해서 30분 늦춰서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보다 먼저 출시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연히 타이밍이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KT도 이날 오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무한 경쟁을 예고했다.

KT측은 "7만원대 요금에서 유무선 음성통화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7일 출시할 예정"이라며 "기존 결합 상품인 'LTE 뭉치면올레' 역시 요금제 구간을 간소화하고 할인액은 최대 2배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보조금 마케팅을 아끼게 된 이통3사가 무제한 요금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면서 "무제한 요금제로 통신3사 당장 영업이익이 1조 가량 줄어들겠지만 신규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치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메신저 '라인' 가입자 4억 돌파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라인'은 지난 1일 전 세계 가입자 수가 4억 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라인은 2011년 6월 23일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서로 음성·영상통화, 스티커 메시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앱으로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다.

2013년 11월 25일 가입자 수 3억 명을 넘어선 이후 동남아시아 및 스페인 등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더 나아가 북미 및 서유럽 등지에서도 이용자가 늘어 전 세계적으로 1일 최대 170만 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글로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3억 명 돌파 후 약 4개월 만인 2014년 4월 1일 현재 글로벌 이용자 4억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한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에서도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라인의 1000만 가입자 돌파 국가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인도를 포함해 총 10개국으로 확대됐다.

가입자 증가에 따라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도 늘어나 2014년 들어 전 세계 1일 메시지 송수신 100억 건, 스티커 전송 수 18억 건, 통화 횟수 12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각각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박성훈기자 zen@

삼성 스마트홈 11개국서 출시 삼성전자는 2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삼성 스마트 홈'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 스마트 홈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오븐·청소기 등 각종 가전기기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TV 등과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 제공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검색광고 약관 시정 명령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검색광고 약관 조항 시정을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명령받았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하고서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검색광고는 검색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이 광고주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미래부 "IT한국 새동력은 사물인터넷"

관련사업 육성 지원 강조

"우리나라를 사물인터넷 사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린 '사물인터넷(IoT) 기본 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신성장 동력으로서 사물인터넷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과거 인터넷이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개념에 그쳤다면 사물인터넷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공간,데이터의 초연결 정보 생성 및 수집·공유 활동을 구현한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 신사업팀 팀장은 "1990년대 우리나라가 인터넷망과 반도체로 IT 강국이 됐다면 이제는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시장 지배자가 없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주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다. 사물인터넷을 호환하는 공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개발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사물인터넷 벤처기업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 제도 개선 작업 등을 벌인다.

이날 산업체 대표로 참석한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넓게 보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車외형 복원 '세덴' 창업 눈길

자동차 분야의 창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최근 신공업과 다양한 기술 노하우가 개발돼 소정의 기간 동안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자동차 외형 복원 프랜차이즈 '세덴'(www.seden.co.kr)이 대표적이다. 세덴은 국내 자동차 외형 복원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로 소정 기간(8~10주)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실습 과정을 통해 가정주부에서 일반 은퇴자까지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세덴만의 독특한 창업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담에서 교육, 상권 분석, 가맹점 창업, 고객 관리 등 전 분야를 하나로 묶은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한다.

/김태균기자 ksgit@

'기름통 기타' 판매 불났다

美 애덤·숀 리 형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마련… 연주가 등 제품 인기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 애틀랜타주에 기름통으로 만든 이색 기타 생산업체 '보헤미안 기타'를 설립한 애덤(28), 숀(25) 리 형제.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유년기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의 악사와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이용해 손수 만든 악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죠. 기름통으로 만든 기타도 있었어요. 생김새가 허술하긴 했지만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헤미안 기타'를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리 형제는 2012년 보헤미안 기타를 설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중소·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일반인에게 투자받는 금융 플랫폼이다.

애덤은 "다른 소규모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면서 "킥스타터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이 없었다면

보헤미안 기타가 제작한 '기름통 기타'. /BBC 제공

회사를 제대로 꾸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기 시장에서 보헤미안 기타를 '생활 악기' 전문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리 형제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연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사업을 갓 시작한 소규모 업체의 매출이 이 정도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이나 개인 투자자도 이름 없는 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 기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부모 집 지하실 창고를 빌려 기름통 기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킥스타터'에서 5만4200달러(약 5760만원)를 투자받았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13만 달러(약 1억3800만원)를 모았다. 보헤미안 기타는 요즘도 여러 펀딩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쌈짓돈 투자'를 받고 있다.

개성 만점 기름통 기타는 악기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기타리스트를 비롯한 전문 연주가와 악기 수집광의 뜨거운 호응 덕분이다. 리 형제는 창고를 벗어나 애틀랜타 도심 한복판에 버젓한 사무실도 차렸다. 기름통 기타 한 대의 가격은 299~550달러 정도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애플의 혁신 vs 삼성의 혁신

특허소송 2차전서 각각 20억·694만 달러 배상 요구

특허소송 2차전에 돌입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같은 전략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애플이 1차전 때 효과를 봤던 '혁신성'을 강조하자 삼성도 '애플 못지않게 혁신적'이라고 맞불을 놨다.

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애플은 약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피고 삼성은 약 694만 달러(약 73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상대편에 요구했다.

/WSJ 제공

특히 이날 모두진술에서 원고인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또다시 강조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1차 재판 때와 같은 변호인을 내세우며 배심원들에게 던진 첫 문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도 반복했다.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배심원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은 변호인을 교체하며 '구글 안드로이드도 애플 못지않게 혁신적'이라고 강조하는 새로운 대응 전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은 훌륭한 회사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니다"며 "선도기업이 정체돼 있을 때 다른 기업이 나타나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구글이 바로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 제품이 잘 팔린 것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일 따름'이라고만 강조했다가 패소로 이어졌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하는 5개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 3700만 대가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거꾸로 삼성은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소송은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까지 포함돼 있어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GM 리콜사태 해결 기구 구성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가운데) 최고경영자(CEO)가 증언하고 있다. GM이 지난달 31일 운전대 오작동 관련 결함이 발견된 차량 130만 대를 추가 리콜하는 등 지난 2월 이후 이 회사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610만 대로 늘었다. 바라 CEO는 이날 리콜 사태 및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개발도상국 대출능력 3000억 달러로 늘린다

세계은행(WB)이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린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빈곤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대출 능력을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확충, 총 30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김용(사진) 세계은행 총재는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 강연에서 지출 삭감 등 내부 개혁과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이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대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간 수백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의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연간 450억 달러

에서 500억 달러를 대출해주는 세계은행은 수년 내 연간 700억 달러까지 빌려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빈곤국은 520억 달러 안팎의 원조나 대출을 받게 됐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에 대한 대출액은 260억~280억 달러로 증가한다.

/조선미기자

'중국의 애플' 샤오미 무서운 성장세

'레오미 노트' 매출 호조…올 폰 판매목표 6000만대로 상향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올해 판매 목표를 600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출시한 '레드미 노트(Redmi Note)' 10만 대가 34분 만에 매진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덕분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샤오미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이쥔이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열린 IT 리더십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레이쥔 CEO은 "샤오미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판매량의 58%에 달하는 11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며 "매년 150% 성장을 목표로 내년에는 1억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저가 스마트폰 전략을 내세운 샤오미는 지난해 3분기에는 레노보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중국 안드로이드폰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 최신형 모델 'Mi-3'가 매진된 데 이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샤오미의 'Mi-2S'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4를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태블릿PC로 영어공부 피드백 효과만점

윤선생 '스마트 베플리' 학습회원 단어·문장시험 성적 향상

태블릿 PC가 교과서, 참고서, CD와 같은 전통적인 학습 매개체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까.

스마트 학습으로 6개월 이상 공부한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2일 나와 눈길을 끈다.

영어 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2013년 8월부터 자사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 베플리'로 6개월 이상 연속 학습한 윤선생영어숲 회원 1만6753명의 월별 단어시험과 문장시험 평균 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단어시험(100점 만점)의 경우 2014년 1월 평균 84.0점으로 지난해 8월(80.0점)보다 평균 4.0점 올랐고 문장시험(6점 만점)은 2.75점으로 지난해 8월(2.42점) 대비 0.33점 상승했다.

스마트 베플리는 태블릿 PC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 정보가 교사와 학부모에게 온라인·모바일로 전달된다.

학생은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난이도의 테스트 유형과 학습량을 스마트 베플리 학습기기로 공부하며 교사는 교사용 단말기로 학습 관리를, 학부모는 학부모 앱 '베플리맘'을 통해 학습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윤선생 이채욱 수석연구원은 "스마트 베플리는 전날의 학습 성취도가 낮을 경우 다음날 학습에서 학습량이 자동으로 보충되기 때문에 평소에 대충 학습하던 학생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학습자가 몰입하면 성취도는 자연스레 올라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태블릿에서 공부를 하면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실시간 이뤄지기 때문에 혼자 해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게다가 같은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일지라도 개인별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

회원 학부모 한승희(38)씨는 "스마트 베플리와 연동된 학부모 앱을 사용하니 아이가 따라 읽은 영어 문장을 녹음파일로 들어볼 수도 있고 단어·문장시험에서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무엇보다 그날그날의 학습 상황에 따라 아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됐고 이 때문인지 아이와의 거리도 예전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윤선생 회원인 어린이가 태블릿 PC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윤선생 제공

연봉 1달러? 눈 가리고 아웅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요즘 숫자 1이 화제다. 유명인들이 1과 그럴듯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글로벌 스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사진). 그의 지난해 연봉은 단돈 1달러였다. 우리 돈 106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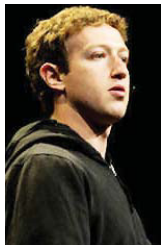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흔한 일이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무려 10년 동안 1달러만 받고 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대의 명분은 한마디로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일에 매진하겠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흔히 듣는 '난 회사와 결혼했다' 정도 되겠다.

그런데 연봉 1달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구호가 마냥 선의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5억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1000원만 받고 경영한 저커버그만 해도 지난해 페이스북 주식 6000만 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해 33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챙겼다.

잡스는 그의 부인에게 100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고 구글의 두 창업자는 각각 260억 달러(약 27조6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언론에서 워낙 "조" "조"하니 다들 이 돈의 규모에 둔해지는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호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산은 10조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6조원, 최태원 SK 회장이 3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집 등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자산 10억원이 지금부터라도 평생 놀고 먹어도 은행 예금 이자로 살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전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1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연봉 1만원'만 받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동창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연봉 1달러만 받은 데서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다음날 바로 민주당에 강펀치를 맞았다. 민주당은 "어이없다. 자신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의 자산은 2조원이다.

저커버그, 잡스, 페이지, 브린은 물론 정 의원은 숫자 1을 내세워 일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보통 사람들은 1이라는 숫자가 조 앞에 붙는 단순한 1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1희1비'한다.

외국어 메뉴판도 척척 번역 KT가 외국어 메뉴판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뉴번역기'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앱은 현재 9개국에서 7개 언어로 서비스하며 8000여 개의 음식 이름을 번역할 수 있다. /KT 제공

윈도8 업그레이드 간단해요

'XP 종료 D-6' MS 상위 버전 갈아타기 방법 제시

"윈도XP 사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상위 운영체제(OS)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가 윈도XP에 대한 기술 지원 종료를 일주일 앞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윈도XP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상위 OS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최선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상위 버전 OS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제어판의 시스템 항목이나 웹사이트 엠아이XP(www.amIXP.co.kr)에 들어가 사용 중인 OS 버전을 확인한다. 다음에는 하드웨어를 바꿀 것인지, 윈도만 업그레이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드웨어를 교체하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울트라북, 윈도 태블릿 등 컨버터블 제품이나 올인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윈도 디바이스를 사면 된다.

OS만 업그레이드하려면 '윈도8 업그레이드 도우미(http://bit.ly/PeCFJw)'를 내려받아 사용 중인 PC가 윈도8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XP 기반 PC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 사용자 설정 등은 7일부터 한국어 서비스 예정인 'PC무버익스프레스'(http://bit.ly/1pKBRaT)를 이용하면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나면 MS 스토어(www.microsoftstore.co.kr)에서 제품 키를 구입하고 나서 MS 다운로드 센터(www.microsoft.com/ko-kr/download)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수강신청 속도 5배

건국대 ODA로 학사 효율 쑥

"수강 신청 속도가 5배 빨라지니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한국오라클은 건국대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ODA)를 도입해 학사·일반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학생 만족도와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는 기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최신 버전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 고가용성 및 높은 효율을 지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를 핵심 서버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강 신청뿐 아니라 학사 행정, 일반 행정, 연구 행정 등 모든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처리 속도를 최대 5배 향상시켰다.

특히 수강 신청 기간 중 순간 최대 100%에 육박하던 기존 서버의 CPU 사용률을 최대 15%로 낮추며 운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성훈기자

진화하는 디스크 치료…수술 없이 끝낸다

초기·중기 증상일 땐 도수 운동 요법 도움
말기 접어든 환자 10분정도 고주파로 해결

김도연(왼쪽)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허리가 늘 뻐근하고 골반이 무거운 느낌을 받아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찾아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호전 없이 최근 엉덩이 통증과 다리 땅김이 심해지면서 다시 유명 척추 병원들을 찾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비수술 신경 성형술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가격만 비싸고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다.

이에 결국 수술을 고민하게 된 B씨는 수술을 반대하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 교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도연 원장은 일자 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오래돼 디스크 증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볼 때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B씨를 진단했다. 이에 김 원장은 간단하게 요추 신경치료 주사 치료를 실시했으며 B씨는 치료 후 병원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다. 이후 B씨는 별다른 통증 없이 현재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또 개그우먼 김경아씨와 결혼한 개그맨 권재관씨 역시 일주일 전 발생한 급성 요추 디스크 파열로 강남초이스병원에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김 원장은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추간판이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려 요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급성 파열형 디스크로 권재관씨 상태를 진단하고 국소마취 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 및 신경 치료술을 시행했다.

◆차원이 다른 고주파 디스크 치료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증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가져오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 치료 등만을 받다 질환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병원인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환자일 경우에는 신경 주사 치료를 선행한 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는 최근에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과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시술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뼈를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이며 감압치료는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다. 또 운동치료는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여의도점 02)786-2200·홍대점 02)33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노화물질 30배 제거…놀라운 진동클렌저

클라리소닉 미세먼지 세정력 美피부과학회서 발표

진동 클렌저가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클라리소닉은 지난달 미국피부과학회 연례회의에서 자사의 진동 클렌저 브랜드 '클라리소닉'이 손 세정보다 노화 촉진 오염물질을 30배 더 깨끗이 씻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최근 밝혔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노화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외인성 노화로 구분되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미세먼지는 외인성 노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문제는 모공보다 작은 사이즈의 미세먼지를 일반적인 세안 방법으로 제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피부 모공보다 20배나 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리소닉이 밝힌 미국피부과학회 '미세 오염물질 세정력' 조사에 따르면 음파 진동 기술을 이용한 클라리소닉 클렌징은 손으로 하는 클렌징과 비교할 때 30배나 더 많은 유해 오염물질을 제거했다. 조사는 미국 내 단일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로 기관 내부의 윤리위원회의 인증을 거쳤으며 2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클라리소닉 클렌징과 손 클렌징을 직접적으로 비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럴수가! 흡연하다 탈장

의학계 상관성 연구 다수

일반인들이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중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국민 100명 중 2~3명이 경험한다는 탈장이 그것이다. 탈장과 흡연의 상관관계는 의학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흡연 후 잦은 기침 '탈장 초래'

탈장은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긴 구멍을 통해 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온 현상을 말한다. 원인은 크게 복압의 증가, 복벽 조직의 약화 등 두 가지다. 먼저 흡연 시 유발되는 기관지염으로 인한 만성 기침은 복압을 상승시켜 탈장을 유발시킨다.

지속적인 기침이 복압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면 약해진 복벽 중 주로 사타구니 주변이 돌출되는 서혜부 탈장을 유발한다.

서혜부 탈장은 탈장의 75%를 차지하는데, 남성의 경우 어렸을 때 복부에서 사타구니로 고환이 내려온 흔적 때문에 일종의 '터널'이 있어 여성보다 더 쉽게 서혜부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흡연 시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파괴하고 종합적으로 복벽의 조직을 약화시켜 탈장을 일으킨다.

◆힘줄 때 배꼽 튀어나오면 '의심'

탈장이 생기면 서서 배에 힘을 줄 때 사타구니나 배꼽 부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데, 눕거나 해당 부위를 누르면 다시 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침을 할 때 배 안에서 압력이 느껴질 때도 탈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탈장은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거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

탈장 수술은 위급하거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아니라도 복강경시술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소화기센터나 외과가 개설된 전문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받으면 된다. /정영일기자 prms@

잠 못자면 이대병원, 여드름 나면 성심병원

대학병원들이 봄을 맞이해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먼저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가 오는 7일 병원 김옥길홀에서 '수면 질환 건강강좌'를 준비했다.

강좌는 불면증 및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수면과 뇌 건강(이향운 신경과 교수) ▲불면증은 치료 가능한가?(임원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면 무호흡 수술-좁아진 부위를 찾아서(배정호 이비인후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또 한림대 성심병원은 같은 날 병원 한마음홀에서 '여드름의 발생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김광중 피부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여드름의 발생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올바른 피부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며 여드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딩동~ 뷰티박스 배달이오

화장품도 큐레이션 바람

전문가가 고객을 대신해 제품을 선별·추천하는 서비스인 '큐레이션 커머스(Curation Commerce)'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대 뷰티 커뮤니티 파우더룸에서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파우더룸 박스' 4월 박스 '꽃보다 여자'를 오는 7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파우더룸 박스는 시즌 이슈와 트렌드에 어울리는 콘셉트로 매달 새롭게 구성되는데 기초 케어부터 베이스 메이크업, 색조 메이크업까지 카테고리와 브랜드가 겹치지 않는 제품이 선별된다. 파우더룸 회원이라면 누구나 공식 페이스북과 모바일 앱 '파우더룸 플러스'에서 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뷰티 큐레이션 커머스 1위인 미미박스(대표 하형석)는 감미로운 음악과 아름다움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뷰티 박스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다음달 11일 잠실에서 열리는 브라이언 맥나잇과 케이윌의 합동 콘서트 티켓과 뷰티박스가 하나로 구성됐으며 정가 대비 최대 50% 가격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은 S석 2인 티켓 세트와 연인 세트, 친구 세트 총 3종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콘서트 좌석은 결제 순서대로 선착순 지정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워킹맘은 반찬 쇼핑중

종가집 장조림·샘표 명이절임 등 손 많이 가는 제품도 출시 잇따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증가하고 가사나 육아에 집중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폭은 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인 '워킹맘'이 증가하면서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포장 반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식품업체인 종가집에 따르면 가장 인기 높은 반찬은 '오징어채 볶음'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견과류 멸치볶음' 등으로 이들 제품 매물은 전년 대비 68%나 성장했다. 특히 '오징어채 볶음' 제품의 경우 전년보다 90%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식료품 기업들이 워킹맘들을 공략한 각종 반찬류 제품을 잇달아 출시해 식탁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대상FNF 종가집의 데이즈에서는 수제 방식을 고집하며 연하고 질기지 않은 고기에 담백한 조림 맛간장으로 조리한 쇠고기·돼지고기 메추리알 장조림과 식물성 기름에 오징어를 불려 더욱 부드러운 오징어채 볶음 등 영양 반찬류를 비롯해 오이지 무침·견과류 멸치볶음·옛맛 무말랭이·옛맛 깻잎지 등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샘표의 '우리엄마 명이절임'은 샘표 양조간장과 몸에 좋은 흑초로 맛을 내 새콤한 맛과 감칠맛을 낸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 상온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형태로 보관 및 운반이 쉬워 싱글족, 캠핑족들이 활용하기에 좋다. 이 업체는 또 '돼지고기 장조림' '닭가슴살 데리야끼' 등 기존에 선보였던 우리엄마 반찬 통조림 시리즈 10종을 판매 중이다.

사조대림은 절임식품 기업 '싱그람'과의 협업을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림 선 싱그람 반찬제품 6종'을 출시했다. 무말랭이·콩자반·연근조림·우엉조림·간장마늘쫑·양념깻잎 등이며 진공 포장 및 실온 보관으로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다.

올가홀푸드는 '올가 맛있는 너비아니'와 '올가 담백한 동그랑땡'으로 구성된 '올가 한식 반찬' 2종을 출시했다. '스팀 오븐 방식'으로 제조된 냉동 제품으로 국산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국산 두부와 채소로 만들었으며 돼지고기는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한울의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예가담가의 즉석 반찬은 매일 조리장이 현장에서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해 직접 제조하고 당일 만든 반찬만을 판매한다. 특히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등 소형 가구에 적합하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한·일 축제 한마당' 기자단 모집

14일까지 행사 홈피 접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돼 만들어가는 한·일 문화 페스티벌 '한일축제한마당 2014 인 서울'에서 기자단을 모집한다.

일본대사관은 축제에서 보다 많은 소식을 공유하고 축제 프로그램과 이벤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줄 기자단 '마쓰리즈(Matsuriz)'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를 좋아하거나 한·일 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omatsuri.kr)나 공식 블로그(kjfestivalseoul.tistory.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e메일(kjfestivalseou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일본대사관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19일 최종 합격자 10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비와 활동 내역 증명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쓰리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활동을 통해 축제 및 한·일 문화 소식을 알리고 축제관련 콘텐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축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에도 참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페이스북(www.facebook.com/kjfestivalseoul)과 트위터(www.twitter.com/kjfestivalseou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홈플러스 '아프리카 바나나' 첫 판매 홈플러스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 바나나를 소싱해 3일부터 홈플러스 영등포점·강서점·부천상동점 등 20여 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산 바나나는 사막 기후에서 자라 밤과 낮의 기온차가 커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기존 동남아산보다 20~30% 저렴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2.1kg 내외)은 송이당 4000원이다. /홈플러스 제공

더케이호텔서울 '오가닉 라이프' 체험 행사

더케이호텔서울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삶인 '오가닉 라이프'를 제안하는 '더케이 스타일 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먼저 호텔은 건강한 이야기로 페스티벌을 시작한다. 4일 오후 2시 호텔 거문고홀에서 슈퍼잼으로 24세에 백만장자에 등극한 영국의 청년 최고경영자(CEO) 프레이저 도허티를 초대해 '더케이 스타일 토크 쇼'를 진행하는 것. 또 호텔은 토크쇼가 끝난 후 야외 광장에서 '오가닉 가든 파티'를 열고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한다. 한편 더케이호텔은 오는 13일까지 고객들의 힐링을 위해 힐링 룸에서의 1박과 오가닉 푸드 뷔페로 구성된 '오가닉 라이프 패키지'도 마련했다. /황재용기자

돼지양념구이 주문한 만큼 '덤 포장'

강강술래 늘봄농원·홍대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평년보다 일찍 만개한 봄꽃 구경에 나설 고객들을 위해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고양 늘봄농원점과 홍대점은 각각 오는 10일과 20일까지 매장에서 소고기류를 시킨 고객에겐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준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서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질칠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2만5800원)도 30% 할인가로 판매한다.

아울러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에 할인 판매한다. 한돈너비아니와 수제 모듬소시지로 구성된 피크닉세트도 오는 13일까지 30% 할인된 1만1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알뜰 소비 방법과 알짜 저축 노하우를 담은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과 '홍콩 주말여행 코스북'을 증정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발랄/ 유쾌/ 코믹/ 발칙한 19금 이야기

4명의 배우, 40,000가지의 일들!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이야기?

SEASON 2

마이 퍼스트 타임
MY FIRST TIME

2014. 3. 6(목) ~ 4. 30(수)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8개국 10개 도시에서 극찬한 연극!

배우 허영란 주연, 전세계 첫 경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더위로 늘어진 피부, V라인으로!

터치 꾸띄르 이경민 원장의 메이크업 팁 V랩핑 베이스-파운데이션 '2단계 리프팅'

퍼펙트 V랩핑 베이스(왼쪽)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독특한 제형으로 리프팅 효과를 구현하는 베이스 제품이다. 퍼펙트 V랩핑 팩트는 투명하고 은은한 광채와 리프팅 효과를 주는 파운데이션이다.

최근 여성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뷰티 포인트는 바로 탄력 있게 올라붙은 브이라인에 꽉 찬 볼륨감으로 더 작아 보이는 얼굴을 연출하는 것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매일 할 수 있는 간편한 메이크업만으로도 날렵한 턱선과 볼륨감 넘치는 라인의 작고 입체적인 '브이·스몰 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봄·여름의 높은 기온은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공을 확장시키고 피부 탄력을 저하시킨다. 이럴 때 리프팅 효과와 피지 조절 기능 등을 겸비한 멀티 제품을 사용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터치 꾸띄르의 이경민(사진) 원장이 30년 뷰티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브이·스몰 페이스를 위한 간단한 메이크업 제품을 소개한다.

브이·스몰 페이스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피부 온도에 반응하는 쫀쫀 리프팅 V랩핑 베이스와 초밀착 투명 커버를 위한 V랩핑 파운데이션을 2단계로 사용하면 바를수록 리프팅된 쫀쫀함을 더해 브이·스몰 페이스를 만들어준다. 이 제품들은 5개국 특허 성분인 퀵리프트와 아르가텐실, 눈과 얼굴 윤곽 케어에 이상적인 리프팅 효과를 부여하는 리프티스(LIFTISS)를 사용해 얼굴선을 더욱 탄력 있게 가꿔준다. 또 모공 타이트닝 성분과 쿨링 성분이 피부를 탱탱하게,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 전체적인 얼굴 라인을 조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쫀쫀하게 올려 붙이는 베이스

터치 꾸띄르의 '퍼펙트 V랩핑 베이스'는 온도에 반응하는 제형의 신개념 랩핑 베이스로 초밀착 리프팅 효과를 실현하는 제품이다. 체온에서는 젤이었다가 40도 미온수에 담그면 액체 상태로 변하는 독특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으면 마치 퍼밍팩을 바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즉각적으로 브이·스몰 페이스를 구현한다. 특히 늘어지고 넓어진 모공에 쫀쫀한 타이트닝 기능을 해 단단하게 짜여진 피부결을 만든다.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과 함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 폴루션 기능 및 오일 프리로 갑갑하지 않게 모공을 숨쉬게 해준다.

◆초밀착 투명커버로 360도 얼짱

퍼펙트 V랩핑 베이스와 완벽 궁합을 자랑하는 터치 꾸띄르의 '퍼펙트 V랩핑 팩트'는 보다 투명하고 은은한 광채와 리프팅 커버를 자랑하는 랩핑 파운데이션이다. 확실하게 조여지는 탄력감으로 얼굴 라인을 확실하게 살리고 사이즈를 줄여줘 더욱 작은 얼굴로 거듭나게 해준다. 초밀착 투명 커버로 피부톤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광채와 보송함이 공존하는 피부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필러 성분이 포함돼 있어 꽉 찬 볼륨감을 더해줘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 브이·스몰 페이스의 완성을 돕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야상의 멋! 댄디하군 슬림한 걸

간절기 패션 연출 포인트

야상재킷은 가볍고 뛰어난 보온성 덕분에 날씨가 변하는 시기 주목받는 제품이다.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 입을 수 있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다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다.

◆남자는 심플한 디자인

남성들은 심플한 디자인의 야상재킷으로 댄디한 스타일에 주목해 보자. 트루릴리전 밀리터리 재킷은 포켓이 깔끔하게 처리돼 있고 특히 올리브 그린 컬러가 차분한 느낌을 배가시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와 함께 화이트 컬러 스트레이트 진을 매치하면 베이식한 디자인이 야상재킷과 어우러져 클래식한 남성미를 뽐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자는 허리라인 강조

여성의 경우 밀리터리 야상재킷을 활용하면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허리라인을 살린 슬림한 핏의 빈티지 밀리터리 재킷은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트렌드로 부상한 레트로 분위기의 재킷과 타이트한 밀리터리 팬츠를 함께 입고 비비드한 그린 컬러의 가방과 하이힐을 신으면 통일감과 화사한 분위기를 뽐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럭셔리 카페 온듯…화장품 매장 변신중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홍대앞 샤라샤라 등 화제

화장품 매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히 제품 구매만을 위한 화장품 매장이 아닌 각 브랜드 콘셉트에 어울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이슬기 제니스웰 MD는 "최근 이색적인 콘셉트와 인테리어로 소비자들의 오감 만족을 위한 브랜드 매장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매장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전했다.

제니스웰에서 운영 중인 '코스메틱 바'(사진)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니스웰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며 제니스웰과 비슷한 콘셉트의 수입 유기농 제품들도 함께 판매하는 편집매장이다. 카페의 음료 메뉴판 같은 화장품 메뉴판이 있어 음료를 고르듯이 메뉴판을 보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유기농 차를 마시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는 소비자들에게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이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독특한 브랜드 체험관이다. 이 공간은 제주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건축 방법으로 지어졌으며 방문객들이 주변 자연을 만끽하며 천연 원료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제주하우스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상품도 있으며 녹차·감귤·화산송이 가루 등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천연 비누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암웨이 브랜드 체험 센터는 제품 체험과 휴식,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암웨이 브랜드 체험 센터 내 '카페-W'에서는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가 제공되며 카페 내 시티팜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는 신선한 채소를 이용한 즉석 샌드위치 및 샐러드와 같은 건강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헤리티지 공간에서는 교육과 암웨이 역사를 소개하며 암웨이 갤러리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미술 작품 등의 다양한 전시가 무료로 운영된다.

샤라샤라는 홍대 부근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해 매장 방문 고객에게 쇼핑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라색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한 인테리어가 독특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화장품 매장과 함께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커피 음료를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머니가 얇은 젊은 소비자층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혜인기자

“하루 12시간 연습… 힐링 음악 하고파”

5인조 걸그룹 스칼렛 데뷔곡 ‘두 베러’로 조용한 돌풍

K-팝의 인기로 매달 수많은 걸그룹이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러나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꾸준한 노력과 끼 많고 재능 있는 다섯 명의 여성들이 뭉친 걸그룹 스칼렛은 다르다. 평균 나이 21세의 앳된 걸그룹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찾아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기본기를 닦아왔다. 노래와 댄스 실력은 물론 연기력까지 갖추고 있다. 데뷔곡 ‘두 베러’를 발표하고 조용한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5인조 스칼렛(사라·지혜·라별·아로미·키미)을 만나봤다.

연기전공 사라와 지혜·재즈댄스 신동 키미… 멤버 이색경력
1년6개월간 실력 갈고 닦아… “차별화된 모습 보여주겠다”

◆감출 수 없는 끼+재능

스칼렛 멤버의 조합을 보고 있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 뮤지컬 배우를 목표로 연극을 전공한 사라와 지혜, 다양한 댄스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두각을 보였던 아로미와 가수 블루베리의 파니니로 활동한 라별, 재즈댄스 신동 키미로 구성됐다.

아로미는 “랩과 춤을 좋아해서 학창 시절부터 댄스팀으로 활동했다”며 “무대 위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키미는 “재즈댄스에 관심이 많아 재즈댄스 대회에 나가 1등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라는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예술적으로 다양한 능력을 키워왔다”며 “한때는 연기만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음악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뮤지컬과를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지혜도 “어릴 적부터 연기를 하면서 춤과 노래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라별은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며 “파니니로 활동하면서 13곡 정도 부른 것 같다”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밝혔다.

◆꿈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음악’

각자 꿈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바로 음악이다. 덕분에 1년6개월가량의 연습 기간과 데뷔까지 하루 열두 시간에 육박하는 연습량을 소화했지만 즐거웠다고 한다.

아로미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 생활도 하고 싶었지만 쉬는 날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며 “연습에 열중하다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성장해가 는게 좋았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은 더욱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재킷 촬영이 처음이어서 끝나고 너무 뿌듯했고 그 기분을 뭐라 할 수 없더라고요.”(라별)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더 돈독해지고 전문가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다 끝나고 나서 다들 고생했다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기분이랄까요.”(사라)

지혜는 “우리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목표다”며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보다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데뷔 한달… 그녀들의 미래는

데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어릴 적부터 음악을 즐겼던 라별과 아로미·키미,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지혜와 사라의 미래는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다 잘하고 싶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음악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처럼 꾸준히 저 자신을 개발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열정을 담아서 하고 싶어요.”(사라)

“저도 사라랑 마찬가지예요. 연기 전공을 했지만 연기나 노래, 춤 역시 예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게 목표지만 현재에 충실면 언젠가 기회는 찾아오겠죠.(웃음)”(지혜)

“늘 배우는 자세로 이어갈 거예요. 노래에 대해 겸손함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뮤지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싶어요.”(라별)

“미래에 대해 장황한 꿈을 꾼 건 아니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올해는 저희 노래를 듣고 ‘스칼렛’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음 앨범이 기대되는 그룹이 되는 게 목표예요.”(아로미)

하지만 이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라며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어쩐지 피아노 잘친다 했더니…

‘밀회’ 조인서·지민우·정유라 실제 음악가

클래식 음악계를 배경으로 한 JTBC 월화극 ‘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조연들이 있다. 극중 조인서 교수·지민우·정유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배우가 아닌 실제 피아니스트들로 극에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인서 교수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맡았다. 박종훈은 2012년 EBS 다큐프라임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3부작을 이끌며 방송에 등장한 바 있지만 연기는 ‘밀회’가 처음이다.

조인서는 ‘밀회’의 주요 배경인 서한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장차 이선재(유아인)의 라이벌이 되는 지민우(신지호)를 양성한다. 강준형(박혁권)은 그를 라이벌로 여기고 늘 질투하지만 정작 조인서는 피아노 하나밖에 모르는 인물이다.

조인서의 제자 지민우는 ‘훈남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신지호가 연기한다. 지민우는 오혜원(김희애)이 기획한 영재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인재로 선재의 질투와 선망을 유발하는 캐릭터다.

신지호는 2012년 드라마 ‘사랑비’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음대생 인성 역으로 이미 연기 신고식을 치른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 SBS ‘놀라운대회-스타킹’에 슈퍼주니어-M의 헨리와 함께 출연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피아노 연주 대결 장면을 재연하며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미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얼굴을 알린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역시 ‘밀회’에 출연 중이다.

진보라가 맡은 정유라는 피아노 실력은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뒷거래로 서한음대 피아노과에 입학한 인물이다. 명품으로 휘감고 학교 생활엔 관심도 없는 정유라는 6회에서 선재를 짝사랑하는 강다미(경수진)와 갈등을 일으키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음악가들이 드라마의 비중 있는 조연으로 파격 캐스팅된 것은 평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안판석 PD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민기자 langkim@

‘밀회’의 숨은 주역들. 극중 조인서 교수와 지민우 역을 맡은 피아니스트 신지호(왼쪽)와 박종훈(오른쪽). /JTBC 제공

이효리 문소리 박은혜

예능프로, 언니들의 진격

이효리·문소리 ‘매직아이’ MC 발탁… 박은혜 ‘밥상의 신’ 진행 맡아

연예계에 언니들 열풍이 불고 있다.

평균 나이 37.7세의 여성그룹 언니들과 아줌마 그룹 소녀시절이 가요계에 데뷔해 주목받는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에도 언니들의 캐스팅이 이어지고 있다.

SBS는 새 예능 프로그램 ‘매직아이’ MC로 ‘트렌드 리더’ 이효리와 여성들의 ‘마인드 리더’ 문소리를 발탁했다.

‘매직아이’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감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 MC들이 합류해 여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포맷의 토크쇼다. ‘세상의 숨겨진 1mm가 보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소리는 연기 외에도 이미 ‘힐링캠프’ ‘마녀사냥’ 등에 출연해 솔직한 입담과 공감 가는 조언 등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마녀사냥’ MC들이 입을 모아 ‘문동엽’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MC로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여배우가 아닌 MC 문소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효리는 지난해 9월 이상순과 결혼 후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는 새롭게 선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밥상의 신’에 배우 박은혜를 MC로 발탁했다. MC로 발탁된 박은혜는 그동안 드라마 외에 KBSN ‘뷰티의 여왕 시즌1·2’와 tvN ‘완판 기획’, 현재 MC로 출연 중인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활약해왔다. ‘밥상의 신’에서도 숨겨둔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밥상의 신’은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바 있다. 왕으로 분한 신동엽이 6명의 패널들과 퀴즈를 풀며 팔도 식재료로 만든 4가지 요리를 맛보는 프로그램으로 음식과 관련한 퀴즈를 맞히면 난이도에 따라 3첩 반상에서 왕의 밥상까지 받을 수 있는 ‘스타골든벨’의 음식 버전이다. 박은혜는 메인 MC 신동엽·김준현과 호흡을 맞춘다.

박은혜는 “완벽한 밥상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음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밥상의 신’에서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달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효리·문소리가 함께 진행을 맡은 ‘매직아이’는 이달 첫 녹화를 할 예정이며, ‘밥상의 신’은 오는 10일 첫 방송 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NE1, 주목해야할 세계 걸그룹 11팀

2NE1(사진)이 미국 유명 온라인 사이트 버즈피드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세계의 걸그룹 11팀’에 선정됐다.

버즈피드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11팀 중 영국의 인기 걸그룹 리틀믹스와 2NE1을 가장 알려지고 사랑받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버즈피드는 “EDM, 랩, R&B 등이 트렌디하게 믹스된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2NE1의 음악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또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61위로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을 세운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첫 주 높은 기록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NE1은 뛰어난 댄서들이며 놀라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 개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버즈피드는 방문자 기준 세계 1위 커뮤니티 뉴스 서비스 매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유명 일간지 LA타임스는 지난달 31일 “2NE1은 이번 앨범 ‘크러시’를 통해 K-팝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고 전하며 “‘크러시’는 각 국가의 대중음악에 한 발짝 다가갔다. 미국 그리고 그 외 어디에서든 K-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2NE1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NE1 월드투어를 통해 현지 팬들과 만난다. /유순호기자

전설의 록밴드 퀸이 온다

8월 열리는 ‘슈퍼소닉’ 헤드라이너로 공연 펼쳐

전설의 록밴드 퀸(사진)이 첫 내한공연을 연다.

퀸은 8월 14~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 ‘슈퍼소닉 2014’의 헤드라이너로 확정됐다. 퀸은 사망한 보컬리스트 프레디 머큐리의 자리를 애덤 램버트로 대신하고 국내 팬들에게 합작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1971년 결성된 퀸은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1991년까지 단 한 명의 멤버 교체 없이 록밴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보헤미안 랩소디’ ‘위 윌 록 유’ ‘위 아더 챔피언’ ‘섬바디 투 러브’ ‘돈 스톱 미 나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등 숱한 히트곡을 쏟아내며 전 세계에 3억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다. UK 앨범 차트에서는 1300주 이상 등

재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로큰롤 명예의 전당, 그래미 명예의 전당, 작곡가 명예의 전당 등에 헌정되며 명성을 입증했다.

퀸과 함께하는 애덤 램버트는 2009년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8’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팝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도발적인 목소리와 외모,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전에서 퀸의 멤버들이 직접 반주한 ‘위 아 더 챔피언’을 열창하며 퀸과 인연을 맺었다.

애덤 램버트와 퀸은 2011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개최된 MTV 유럽 비디오 어워즈에서 조우한 후 2012년 6월부터 총 6회의 유럽 공연을 함께했다.

한편 ‘슈퍼소닉 2014’가 헤드라이너를 발표하면서 올여름 음악 페스티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효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

어버이날 '감동의 선율' 선물하세요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가족 음악회 개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감동의 가족 음악회가 열린다.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가 어버이날인 5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국내 최대 무료 신문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 기념과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주최하는 음악회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여자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펼쳐질 이번 음악회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등 어버이날에 어울리는 각종 풍성하고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와 하피스트 김아림이 협연한다.

소프라노 신영옥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꼽히는 신영옥은 소프라노 중에서도 경쾌하고 화려한 음색을 지녔다는 평을 지닌 음악가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통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이후 1992년 예술의전당에서 가진 독창회로 국내 무대에 데뷔했고, 플라시도 도밍고·루치아노 파바로티·레오 누치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공연하며 전 세계 클래식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아왔다.

또 영국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프랑스의 바스티유 오페라, 니스 오페라, 쾰른 오페라 등 수많은 오페라 무대의 주역으로 전 세계를 누볐다. 특히 질다(주세페 베르디 '리골레토' 중)와 루치아(가에타노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역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었다.

1997년 2월 창단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피아니스트 백건우, 발레리나 강수진,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및 단체와 협연했다.

여자경 지휘자는 빈 국립음대 졸업 후 KBS 교향악단·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을 지휘했으며, 현재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 지휘자인 동시에 단국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휘자 여자경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

하피스트 김아림

임지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스트만 음악대학과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으며, 조선일보·한국일보 등 국내 주요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김아림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음악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콜럼버스 인디애나 필하모닉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하프 수석으로 있다.

공연 예매는 SAC 티켓(www.sacticket.co.kr·02-580-1300)과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1544-1555)에서 가능하다. 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031-392-6422·www.primephil.net)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박재범·김수로 '댄싱9' 합류

소녀시대 효연과 유리가 엠넷 댄스 서바이벌 '댄싱9'을 떠난다.

CJ E&M은 2일 "가수 박재범(사진 위)과 배우 겸 공연기획자 김수로(아래)가 '댄싱9'의 두 번째 시즌부터 마스터로 합류한다"며 "기존 마스터였던 이용우, 박지은과 함께 네 사람이 블루아이 마스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데뷔 전부터 비보이로 활약한 춤꾼 박재범이 소녀시대 효연과 유리, 더키를 대신해 K-팝 댄스와 스트리트 댄스 부문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 시즌 특별 심사를 맡았던 배우 김수로는 전략 담당을 맡아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끌게 됐다.

관계자는 효연의 하차에 대해 "얼마 전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박재범과 김수로 합류는 이전부터 결정된 사항으로 포스터 사진 촬영도 끝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레드윙즈 마스터단은 원년 멤버 이민우·우현영·박지우 마스터에 지난 시즌 레드윙즈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한 비보이 하휘동이 합류했다.

마스터단을 확정 지은 '댄싱9'은 오는 6일 서울 예선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 심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인 마스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댄싱9'은 현대무용·발레·비보잉·K-팝 댄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춤꾼들이 경합을 벌여 우승자를 가리는 국내 최초 댄스 서바이벌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사랑을 받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

한재석·정만식 "첫 촬영 황당"

파일럿 예능 '피터팬' 녹화소감

배우 한재석(사진 오른쪽)과 정만식(왼쪽)이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미스터 피터팬'(이하 '피터팬')으로 리얼 예능에 도전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웠던 두 사람은 리얼리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일 여의도에서 열린 '피터팬' 간담회에 참석한 한재석은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진행자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믿고 따라갔다"며 "13시간 동안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오디오도 항상 켜있다는 점이 황당했다"고 리얼 예능 첫 촬영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아내 박솔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줬다. 스스로도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인상파 배우 정만식도 '피터팬' 노안 막내로 첫 리얼리티 방송에 출연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대본이 없다. 신동엽·윤종신 빼고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녹화를 했다"며 "첫 촬영을 10시간 넘게 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른 채 제작진만 믿고 찍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출연진을 된장찌개 재료에 비유하며 "신동엽이 된장이라면 나는 마지막에 넣는 청양고추다"고 감초 역할을 기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터팬'은 영원한 피터팬을 꿈꾸는 철부지 40대 중년 스타들의 토크쇼이며 이들은 일반 출연자들과 함께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현숙 PD는 "40대들이 활동하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섭외했다. 스타 출연진이 이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고 체험하는 구성이다"며 "찾아보니 운동 관련 동호회 외에도 전투식량을 공부하는 동호회, 폐가를 돌아다니는 동호회, 풀피리 동호회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주제에 따라 다른 매력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피터팬'은 '19금 토크'의 달인 신동엽의 첫 리얼리티 예능이라 시청자의 기대감이 높다.

'피터팬'은 오는 4~5일 1·2회가 방송되며 신동엽·윤종신·김경호·한재석·정만식이 출연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섹시한 등근육 가진 정조 보고싶죠?"

현빈 영화 '역린'으로 복귀

"시나리오 읽자마자 반해 조정석·정재영 역도 탐나"

현빈의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역린'의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역린' 제작보고회에서 출연 배우들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현빈, 정재영, 조정석, 한지민, 정은채, 박성웅(왼쪽부터). /뉴시스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영화 '역린'을 택해 오랜만에 팬들 앞에 돌아오는 현빈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일 오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현빈은 '역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 후 중화권에서 팬미팅을 할 때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매력을 느꼈다. 정조 캐릭터 외에 조정석과 정재영 선배의 역할까지 탐이 날 정도로 멋진 작품이라 귀국 후 바로 이재규 감독을 만나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 공개된 영화 스틸에서 탄탄한 '화난' 등 근육을 선보여 화제가 된 현빈은 복귀작인 이번 영화를 위해 기울인 남다른 노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왕이라면 '화난' 등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나리오에 딱 한 줄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정조, 세밀한 등 근육'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세밀한이라는 세 음절 때문에 세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촬영 후 한 달 반까지 식단 조절을 했다. 그래서 등 근육이 화가 나 있었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현빈의 말에 이재규 감독은 "현빈이 그 세 음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문무에 뛰어난 정조를 집요할 정도로 표현했다. 너무 집착처럼 노력을 하니까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다. 스태프들은 야식 먹는데 혼자 먼 산 바라보면서 참는 게 대단했다"고 거들었다.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후 3년여 만에 '역린'으로 연기를 펼친 소감에 대해서는 "군대에서도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고 그리웠다. 기분이 좋은 반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 있어서 그것을 누르는 데 많이 신경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30일 개봉할 '역린'은 정조 즉위 1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왕의 암살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현빈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조선의 왕 정조로 변신했다.

한편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한지민·정재영·조정석도 참석했다. 그중 정조와 정치적인 원수 관계인 정순왕후 역을 맡아 악역에 도전하는 한지민은 "어느 날 강남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보고 급정거를 했는데 현빈이었다"고 남다른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윤시윤·여진구 주연 '백프로' 해외 8개국 선판매

3일 개봉 예정인 윤시윤·여진구 주연의 영화 '백프로'(사진)가 해외 8개국에 선판매됐다.

배급사 씨네마제니스는 2일 "27일 폐막한 홍콩필름마켓에서 '백프로'가 아시아 각국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홍콩·싱가포르·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7개국에 판매됐다"면서 "앞서 판매된 일본에서는 8월 개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프로'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윤시윤의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인 데다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 출연 후 영화계의 기대주로 떠오른 여진구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섬마을에 머물게 된 전직 프로 골퍼 백프로(윤시윤)가 폐교 위협에 처한 전교생이 6명뿐인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반항아 이병주(여진구)를 비롯한 아이들과 만나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한편 배급사 측은 이날 모던 록 밴드 휴먼레이스와의 콜라보레이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엠넷 '보이스코리아' 시즌 2에 출연해 톱 4에 오른 윤성기가 속한 밴드 휴먼레이스가 최근 공개한 싱글의 메인 타이틀곡인 '고'와 '백프로'가 함께 손을 잡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꿈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사가 영화 내용과 어우러졌다. 윤시윤과 여진구의 미공개 영상도 포함됐다. /탁진현기자

송강호, 이준익 감독과 뭉쳤다

사극 '사도'서 영조 역…상반기 크랭크인

'1000만 배우' 송강호와 '1000만 감독' 이준익 감독이 의기투합한다.

송강호가 이준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사도' 출연을 확정했다. 지난해 개봉한 '관상'에 이어 두 번째 사극 도전이다.

이준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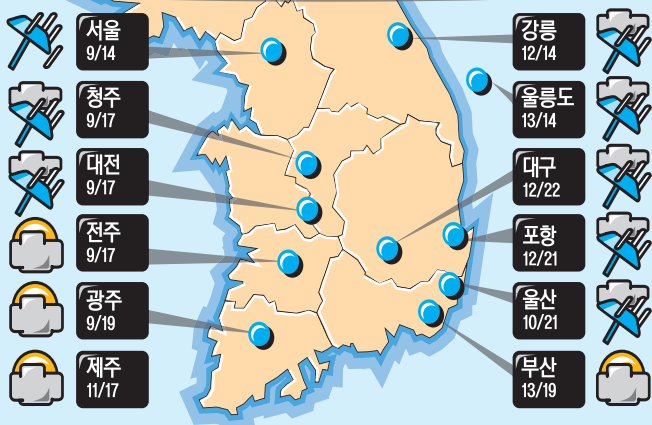
송강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영조가 둘째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이야기를 그린 '사도'에서 송강호는 주인공 영조 역할을 맡았다.

2006년 사극 '왕의 남자'로 1200만 이상 관객을 모은 이 감독과 지난해 900만 관객을 넘긴 '설국열차' '관상', 11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 등 출연작을 연이어 흥행시킨 송강호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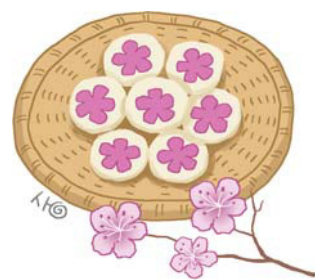
'사도'는 올 상반기 크랭크인 예정이다.

한편 '설국열차'는 6월 11~19일 열릴 제20회 LA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6월 27일 북미 개봉을 앞두고 영화제를 통해 현지에 첫선을 보이게 된다.

LA영화제 측은 "'설국열차' 개막작 선정으로 인해 전 세계 영화인들이 LA영화제를 통해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진달래꽃 화전 먹는 까닭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올해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동시다발로 피면서 세상이 전부 꽃밭으로 변했다. 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상님들은 입으로도 꽃을 감상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을 먹으며 멋과 낭만을 즐겼으니 봄이면 진달래화전에 배꽃을 따다 이화전을 부쳤고 여름에는 장미전과 연꽃으로 만든 연화전(蓮花煎), 가을에는 국화전으로 계절을 맛보았다.

요즘은 봄꽃 구경은 벚꽃이 우선이지만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진달래 꽃구경을 했다. 서울만 해도 남산은 아예 진달래 꽃밭으로 봄놀이를 겸해서 진달래 따다가 화전을 부치는 것이 풍류고 낭만이었다.

우리는 봄이 되면 진달래를 다양하게 먹었다. 찹쌀가루에 진달래꽃을 얹어 부치는 화전을 비롯해서 밀가루에 진달래꽃을 따다 섞어 뽑는 진달래꽃 국수인 화면(花麵)도 있고, 진달래꽃 띄운 화채로 마른 목을 축였으니 입안에 꽃향기가 가득 퍼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진달래떡에다 진달래술까지 봄이면 곳곳에서 진달래 축제가 벌어졌다. 그런데 왜 봄에 피는 수많은 꽃 중에서 진달래꽃을 먹으며 봄의 잔치를 벌였을까?

진달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꽃인 데다 철쭉은 먹지 못하고 개나리 역시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니 진달래로 화전을 부쳤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진달래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날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치면 멋과 함께 여름 더위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 진달래화전은 낭만이고 음식이며 보약이다.

어제가 삼짇날, 진달래화전 먹는 날이었지만 대신 주말에 진달래꽃·벚꽃을 감상하며 눈과 함께 입 호사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7					
	3		9	5	8			
5	9		3					1
	8						6	
6	1	9				5	8	3
	4						7	
1					9		3	8
			8	4	7		1	
					5	4		

스도쿠 정답

8	2	6	7	1	4	3	5	9
4	3	1	9	5	8	6	2	7
5	9	7	3	2	6	8	4	1
7	8	2	5	9	3	1	6	4
6	1	9	4	7	2	5	8	3
3	4	5	6	8	1	9	7	2
1	5	4	2	6	9	7	3	8
9	6	3	8	4	7	2	1	5
2	7	8	1	3	5	4	9	6

		5			8		1	7
		9	3					
			7				3	
9	5		2			6		
1	3						7	8
		2			7		5	9
	1				9			
					3	5		
2	7		4			3		

3	2	5	9	6	8	4	1	7
7	4	9	3	1	5	8	2	6
8	6	1	7	4	2	9	3	5
9	5	7	2	8	1	6	4	3
1	3	6	5	9	4	2	7	8
4	8	2	6	3	7	1	5	9
5	1	3	8	2	9	7	6	4
6	9	4	1	7	3	5	8	2
2	7	8	4	5	6	3	9	1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승진탈락해 이직 생각중인데 속상하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ms어뭉 여자 81년생 생일 비공개 요청

Q 무난하게 진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떨어져 너무 괴롭습니다. 저보다 능력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들도 다 무난하게 되던데 유부녀라 차별받는 것 같아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건지 작년에 동종업계 회사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었는데 추진하는 게 나을는지요.

A 사주 뿌리에 인비(印比:나를 생해주고 나 자신과 동급)가 상당한 힘을 지니고 나의 기운인 일간(日干)을 돕게 됩니다. 이는 절처봉생의 형국으로 암록(숨은 재물)의 작용을 나타내는데 경쟁국면에서 귀인이 따르게 되니 능력을 대등소이하지 않도록 월등하게 키우십시오. 생일지의 관고(官庫:직업이 들어있음)에 백호(白虎)는 의지가 강하고 시간이 갈수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발복이 있습니다. 실력이나 조건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 당장은 원망의 기운이 서려있으나 이직 제의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처세가 최상의 방법입니다. 2014년 음력 7월 12월 만병의 근원은 냉증에서 오기 쉬우니 몸의 보온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니와 노래방 동업 잘될까요 흰옷입고 탄광가는 격 포기를

달별사랑 여자 64년 10월 14일 양력

Q 애들도 다 크고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친언니가 노래방을 하고 있어서 자주 가서 일도 돕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아예 언니랑 동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는지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시작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같이 사업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A '석양에 지는 노을의 모습'으로 호화롭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자만하여 뽐내는 기질이 있습니다. 불이 쇠를 녹여 기물을 만드는 형상으로 재능이 많아 한곳에 집중하거나 안주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밝으나 사주상 이재의 능력은 보통 수준이니 활동성이 강하다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주유하는 가운데 이성과 애정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는 고달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상 여연살(女戀殺)로 배우자 몰래 다른 애인을 숨겨둘 여지가 있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흰옷을 입고 석탄광 옆에 가는 것과 같으므로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신상에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3일 (음 3월 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60년생** 의심이 가는 일은 확인 또 확인~. **72년생** 생각도 못 한 경사가 생긴다. **8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고 허욕은 금물~.

49년생 좋은 일에 마가 끼니 조심~. **61년생** 살아있는 꿈이 소용돌이친다. **73년생** 소망한 일은 성취되니 걱정 마라. **85년생** 친한 벗과 가는 길이 달라 괴롭다.

50년생 배우자가 눈물이 날 만큼 고맙다. **6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진퇴양난~. **74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땅을 친다. **86년생** 노력한 결과가 풍성해 야호~.

51년생 자녀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할 것. **63년생** 구식 영업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75년생**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은 피하라. **87년생** 고민은 우연히 해결된다.

52년생 운기가 열려 행운이 굴러온다. **64년생** 뭘 할지 몰라 방황의 하루~. **76년생** 집안에 봄의 온기가 가득하다. **88년생** 노력 없이 황금알 낳는 거위는 없음을 명심~.

53년생 집안일은 앞장서서 이끌어라. **6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7년생** 기회가 왔으니 이 악물고 뛰어라. **89년생** 생기발랄한 연인 때문에 만사 즐겁다.

42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54년생** 남들과 다르게 할 일을 찾아보라. **66년생** 빛나는 성과로 존재감 극대화한다. **78년생** 시작한 일은 마침표를 잘 찍어라.

43년생 생각했던 일은 기대하지 마라. **55년생** 욕심부리면 얼굴 붉힐 일 생긴다. **67년생** 시한폭탄 같은 동료 때문의 긴장의 하루~. **79년생** 운기가 열려 매사 순조롭다.

44년생 욕심을 부리면 말썽이 생긴다. **56년생** 사소 한데서 스트레스받지 마라. **68년생** 기득권 버려야 편안하다. **80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한잔에 오~해피~.

45년생 야외 활동은 자제하라. **57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나 조화가 무궁하다. **69년생** 잘난 배우자 덕에 행복한 하루~. **81년생** 욕하면서 닮아가는 게 친구다.

46년생 생각도 못 한 사람이 찾아온다. **58년생** 불길한 조짐이 있으니 외출 삼가라. **70년생** 시간 끌기 작전은 아쉬움만 남는다. **82년생** 생각의 차이 인정하면 편안~.

47년생 바쁘나 보람찬 하루~. **59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71년생** 직장인은 하는 일에 막힘이 있으니 대비하라. **83년생** 고통의 극복은 성공 열쇠다.

'추 출루=팀 승리' 통했다

추신수 첫 멀티히트 포함 4차례 출루…텍사스 역전승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의 출루 본능이 깨어났다.

추신수는 1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몸에 맞는 볼 1개, 볼넷 1개를 기록했다. 5번 타석에 나서 4차례 출루했고, 다양한 방식의 출루를 보이며 리그 최고 톱 타자의 명성을 입증했다.

특히 동점 득점과 역전 결승 득점을 올리며 '추신수의 출루=승리'라는 필승 공식을 확인시켰다. 전날 개막전에서 4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하루 만에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며 홈 팬들을 열광시켰다. 시즌 타율은 0.286(7타수 2안타)으로 올라갔다.

'출루머신' 추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첫 타석에서부터 풀카운트 접전을 벌이며 상대 투수 AJ 버넷을 괴롭힌 추신수는 7구째 직구를 중견수 앞 안타로 연결시켰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사구(26개)를 기록해 올해는 덜 맞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던 추신수는 2경기 만에 '공 맛'을 몸으로 느꼈다.

5회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추신수는 1-2로 뒤진 7회 안타로 출루하며 동점의 발판을 만들었다. 2번 엘비스 안드루스의 보내기 번트 때 2루로 진루한 추신수는 3번 프린스 필더의 내야 땅볼을 틈타 3루까지 밟았다. 이어 4번 아드리안 벨트레의 2루타 때 홈에 들어왔다.

9회에도 추신수가 볼넷으로 출루하자 7회와 같이 안드루스의 보내기 번트, 벨트레의 안타가 이어져 텍사스는 3-2로 역전하며 경기를 끝냈다.

추신수의 출루 능력이 살아나면서 텍사스의 승리 공식에도 힘이 붙었다. 텍사스는 이날 추신수의 출루, 안드루스의 번트, 필더와 벨트레의 한방이라는 공격의 정석을 확실히 점검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장난꾸러기' 류현진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투수 류현진(왼쪽)과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오른쪽)가 연습에 앞서 3루수 후안 우리베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날 돈 매팅리 감독이 오는 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다저스 홈 개막전에 류현진을 선발 투수로 올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메달 사냥 계속된다

리스본 월드컵 시작 3주연속 강행군 돌입

'리듬체조'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3주 연속 강행군에 돌입한다.

손연재는 3일(이하 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리스본 월드컵에 참가한다. 4~5일 개인종합에 나선 뒤 상위 8위에 들어갈 경우 6일 결선에서 종목별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 리스본 월드컵이 끝나면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이탈리아 페사로 월드컵에 참가한다. 이후 15일 귀국해 국내 일정을 소화한다.

손연재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열릴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26일과 27일엔 잠실체육관에서 LG 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를 통해 갈라쇼를 갖는다.

손연재는 갈라쇼를 마친 뒤 다시 모스크바로 출국해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할 예정이다. 올 시즌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에 100% 적응하지 못한 손연재는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가해 프로그램 소화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손연재의 올 시즌 최대 목표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한편 리스본 월드컵에서는 리듬체조 기대주 천송이(17·세종고)가 손연재와 함께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지난 2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한 울산 모비스의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비스, 적지서 LG 꺾고 1승 거둬

두 시즌 연속 우승 노린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팀 통산 다섯 번째 플레이오프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모비스는 2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 1차전에서 창원 LG를 77-74로 제압했다.

모비스는 3일 오후 7시 다시 한번 창원에서 2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1위팀 LG는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 1997년 창단 이후 첫 플레이오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비스의 문태영(20점·9리바운드), 함지운(18점)의 활약에 홈에서 패했다.

모비스는 1쿼터에 함지훈·로드 벤슨·양동근 등 선발 출전 선수들이 무서운 기세로 슛을 쏘며 24-11로 LG를 앞서갔다.

2쿼터 들어서 LG의 반격이 시작됐다. LG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10-6으로 앞선 뒤 데이본 제퍼슨(27점·9리바운드)의 활약으로 33-36까지 따라 잡았다.

제퍼슨의 활약은 3쿼터까지 이어졌다. 제퍼슨은 쿼터 종료 5분18초를 남기고 레이업을 성공시켜 47-46으로 역전한 뒤 연달아 2점슛을 넣어 4점을 추가했다.

3분4초가 남은 상태에서 김종규는 제퍼슨의 패스를 앨리웁 덩크로 연결시켜 56-49까지 격차를 벌렸다. 4쿼터 4분여를 남기고 69-72로 뒤처지던 모비스는 막바지 집중력을 발휘했다. 종료 3분38초 전 양동근의 슛을 시작으로 문태영·함지운이 잇따라 점수를 추가하며 75-72로 역전했다.

LG는 막판 뒤집기에 나섰지만 1분 32초를 남기고 김종규의 덩크가 로드 벤슨에게 가로 막혔고 모비스는 종료 50초 전 문태영이 골밑슛을 추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프로농구 챔프 1차전 2일

팀	1Q	2Q	3Q	4Q	합계
LG	11	22	27	17	74
모비스	24	12	19	22	77

월드컵 입장전 257만장 판매

브라질 월드컵 입장권 257만 장이 판매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일 발표한 입장권 판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330만여 장 가운데 1일까지 총 257만7662장의 입장권이 팔려나갔다.

FIFA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차로 입장권을 판매했고, 지난달부터 1일까지 2차 판매를 진행했다. 마지막 판매는 15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국가별로는 개최국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104만여 장을 사갔고, 그다음으로는 미국(15만4412장), 호주(4만681장), 잉글랜드(3만8043장), 콜롬비아(3만3126장)가 많은 티켓을 사갔다.

FIFA 마케팅 담당자인 티에리 베일은 "브라질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팬들로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순호기자

여자배구 챔프 4차전 2일

GS칼텍스	3	1	기업은행

ACL 조별리그 4차전 2일

전북	1	0	광저우

△득점= 레오나르도(후30분)

산둥	2	4	포항

△득점= 두웨이(후40분), 한펑(후48분·이상 산둥)고무열(전35분), 김태수(후20분), 김승대(후26분), 손준호(후반38분·이상 포항)

프로야구 전적 2일

■잠실

팀	1-3회	4-6회	7-9회	합계
SK	003	000	000	3
LG	000	106	01X	8

△승리투수= 유원상(1승) △패전투수= 윤희상(1패)

■목동

팀	1-3회	4-6회	7-9회	합계
두산	030	013	002	9
넥센	010	100	201	5

△승리투수= 볼스테드(1승) △패전투수= 오재영(1패) △홈런= 칸투 2호(2회1점) 민병헌 1호(5회1점) 양의지 2호(6회1점·이상 두산) 이성열 1호(7회1점) 문우람 1호(7회1점·이상 넥센)

■대전

팀	1-3회	4-6회	7-9회	합계
삼성	002	100	020	5
한화	000	006	31X	10

△승리투수= 앨버스(1승)△패전투수= 배영수(1패) △홈런= 나바로 2호(3회2점·이상 삼성) 송광민 2호(6회3점) 김회성 1호(6회1점) 정현석 2호(8회1점·이상 한화)

■광주

팀	1-3회	4-6회	7-9회	10회	합계
NC	010	005	100	1	8
KIA	000	001	510	0	7

<연장 10회> △승리투수= 임창민(1승) △세이브투수= 김진성(1세이브) △패전투수= 서재응(1패) △홈런= 나성범 1호(6회2점·이상 NC) 필 2호(7회2점·KIA)